

## <지난주 말씀&서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말은 여러분의 브랜드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브랜드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브랜드 가치를 순위를 매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입니까? 우리의 브랜드는 순위가 없습니다. 영순위입니다. 이 땅에서 매길 수 없는 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심입니다. 이번주에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브랜드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망대의 가치가 영순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직장에 가야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과 5천 종족 때문에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돈 벌려고 직장 가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영순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시진핑이 실각을 한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천년만 살 것 같고 황제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흐름도 잘 보셔야 합니다. 세계 흐름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흐름도 잘 보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시대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월 붙잡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생각의 복음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복음화가 안되면 내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가 안되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안되는 것은 안하면 됩니다. 되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찾았다면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존을 해도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존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넉넉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있던 때도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현

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시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왜 주시냐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맞냐 틀리냐 이런 이단들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안 붙잡으면 안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잡아먹힙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본론>

### 1.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2:1)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멸망을 앞당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단을 끌어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33년을 계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복음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널널한 게 아닙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벧후2:2)

이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성육의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호색하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따르면서 육신의 정욕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간 사람들이 절대로 관심이 전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벧후2:3)

탐심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골3:5에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탐심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삶입니다.

## 2. 하나님의 보존과 심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2:4)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입니다. 여기에 관계되고 동조한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볼 게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덩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보면서, 이 수도꼭지가 곧 어느 날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또 동파하는 날이 오잖아요. 한 계절도 못보는데 무슨 시대를 보겠습니까? 바울은 이 시대를 보고 두란노로 가서 미래 서밋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벧후2:5)

노아 홍수 사건이 또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었고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보존하셨어요? 방주로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존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방주로 나를 보존하십니다. 그 방주의 비밀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보존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구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벧후2:6-7)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하나님이 본을 삼으셨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한 사람밖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이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존의 쪽입니까, 멸망의 쪽입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벧후2:8)  
 이걸 알고 의인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자기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벧후2:9)

심판을 당할 때까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의한 자가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나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벧후2:10-11)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두가지 쪽으로 나뉩니다. 구원이나 멸망이나, 중간이 없습니다.

### 3. 짐승 같은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벧후2:12)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는데,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짐승같은 존재처럼 가두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 짐승같다, 이건 욕이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욕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벧후2:13)

그냥 멸망을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불의의 댓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탄식을 합니다. 성도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불의와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거짓 선동에 놀아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벧후2:14)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당하는 자들은 음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음심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세상 유혹에 넘어가도

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돼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 그는 불의의 샅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벧후2:15-16)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나귀를 주의 사자가 막았을 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게 안 보여서 나귀를 왜 안 가느냐고 때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고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 같은 발람에게 짐승인 나귀를 가지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에게 책망을 들어야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벧후2:17)

이 사람들에게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에게는 허끝을 적셔줄 한 방울의 물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습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벧후2:18-19)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사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벧후2:20)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도 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망하는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벧후2:21)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고 물질에 돌아가고 탐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벧후2:22)

이 말은 개 같은 인생, 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보존된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종교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내 브랜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결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이단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멸망이 잡들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짐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있습니다. 나는 보존의 자리에 있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브랜드를 찾은 사람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입니다.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